

# Kwon Yongju

권용주

1977년생 신진작가 권용주는 최근 'a buoy light-부표등'에 주목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에 따르면, "부표등은 안주할 곳 없는 청년들의 고단함과 그들이 바라는 정신이나 가치의 어떤 지점 혹은 기준에 대한" 물음이고 제시이다.

그는 동대문구 전농2동 서웅약품 주차장에서의 첫 개인전(2002)을 시작으로 홍대 앞 로베르네 집에서 두 번째 개인전(2005)을 치렀으나 현장 혹은 장소 특정적 개입 작업에 의한 작품들은 널리 인식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를 신진으로 머물게 하는 지점이 되고 있다. 반면, 2009년 9월에 참여한 <휘경-사라지는 풍경>(통의동 보안여관)의 전시는 권용주라는 작가의 멘탈리티와 미학적 추궁이 무엇인지 각인시킨 작은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그는 <누구의 산-2009 "우리 정상에서 만나요">라는 다소 길고 모호한 제목의 작품을 선 보였는데,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오브제들에 의해 그의 작품은 무겁고 깊은 내러티브에서 가볍게 수면 위로 상승했다. 시멘트 조각과 사진으로 설치된 전시공간은 '민족' 혹은 '국족國族'을 지향하며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린 북쪽의 '백두산'과 그것의 허구적 판타지로서의 이미지들은 비루한 현실에 갇힌 일그러진 민족성을 암담하게, 치졸하게 그러면서 딱딱하게 보여준다. 전국 곳곳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채집한 이미지들은 지금까지의 현실을 낱낱으로 증언하는 증거물이자 실상이다.

시멘트 블록(벽돌)을 쌓아 올린 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2008년작,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글귀를 새긴 작품은 그의 현실인식이 갑작스럽게 돌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정용 국기 게양대를 거꾸로 설치한 작품(2007)이나 뒤집힌 양철 물통도 그렇다.

장소, 공간을 찾아 프로젝트성 기획 작품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작품들은 비록 과작이지만 뚜렷하게 자신의 미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또한 그의 활동이 2005년 이후 비약적으로(물론 그 자신을 상대화 했을 때이지만) 눈에 띄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에만 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지속적이나 느리게 그러나 우직하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있는 권용주 작가를 추천하는 이유다.

김종길(미술평론가)